

**“본국 가족 송금·우편 부담 덜어준다” …법무부·우정사업본부,
국내 거주 동포·가족 대상 정주 지원 업무협약 체결**
- 국제특급우편 최대 13% 할인, 예금 우대금리 적용, 해외송금
환율 우대 제공 -

8월 28일(금)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(본부장 차용호)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(본부장 박인환)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그 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거주 동포(재외동포(F-4), 방문취업(H-2) 자격 소지자)와 그 가족은 국제특급우편(EMS·EMS프리미엄) 이용 시 요금 10% 할인, 우체국 예금 이용 시 최대 0.15%의 우대금리 적용, 해외송금 이용에 따른 30%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.

법무부X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!

동포와 그 가족을 위한 우체국 혜택 안내

이용 방법

이용대상	필요서류
동포 본인 (F-4, H-2)	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
동포 가족 (F-1, F-3)	1. 본인(동포 가족)의 외국인등록증 2. 동포(F-4)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동포(H-2)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→1,2 모두 지참

혜택제공 기간

2026. 9. 1. ~ 2027. 6. 30.

이를 통해 동포와 본국 가족 간의 우편 이용 부담을 덜고, 국경과 거리를 넘어 가족 간 따뜻한 소통과 유대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내용과 이용 가능한 우체국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·홍보할 예정이므로, 이용을 원하는 동포와 가족들은 가까운 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.

차용호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”며 “앞으로도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“이번 협약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민과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포들이 국내에 생활하면서도 본국의 가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, 올해 하반기 내에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‘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’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	책임자	과 장	김세진 (02-2110-449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원 (02-2110-4141)

